원석 2개 캐고…하루만에 40억원 번 탄자니아 광부

▲탄자니아 광부 사니니우 라이저씨가 채굴한 탄자나이트 원석. 두 개를 합한 가격이 우리 돈 40억원에 이른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소규모 광산을 일구고 있는 한 50대 광부가 하루만에 우리 돈 40억원 어치의 광물을 캐냈다고 BBC·알자지라 등 외신들이 2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광부인 사니니우 라이저(52)씨는 지난 주 자신의 거대한 탄자나이트 원석 2개를 파냈다. 탄자나이트 원석은 각각 9.2kg, 5.8kg으로 합해서 15kg 분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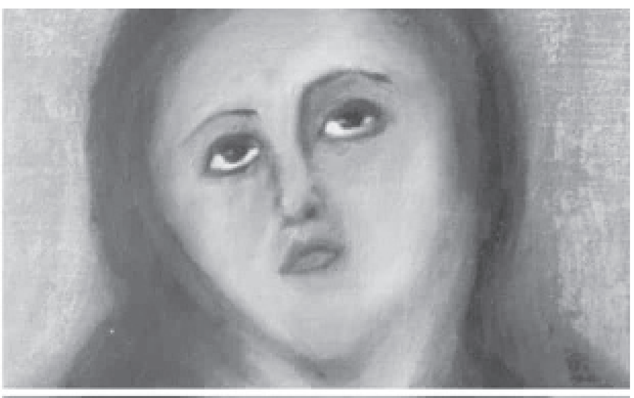
이들 광물은 탄자니아에서 발굴한 탄자나이트 중 가장 큰 크기로 잡힌다고 BBC는 전했다. 이전까지 발견된 가장 큰 탄자나이트는 3.3kg이었다. 탄자나이트는 검푸른색을 띈 광물로 가공해 보석이나 장신구 등으로 사용한다. 탄자니아 북부에서만 발견되는 탄자나이트는 향후 20년 이내에 자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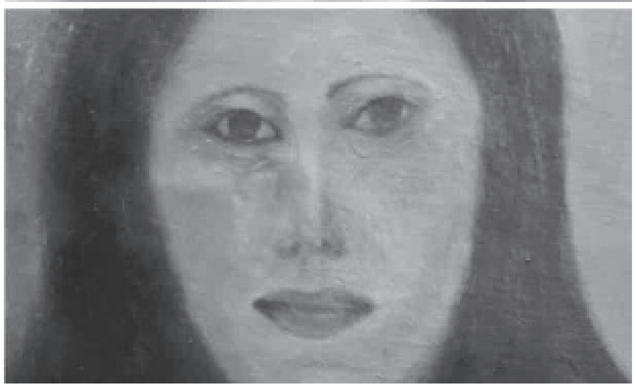
라이저씨는 이 광물들을 24일 탄자니아 북부 마냐라 인근에 있는 거래소에 팔았다. 판매액은 77억4000탄자니아 실링(약 40억원)으로 알려졌다.

소식이 전해진 뒤 존 마구풀리 탄자니아 대통령이 라이저에게 전화를 해 축하했다. 마구풀리 대통령은 "(이번 채굴은) 소규모 광부들의 이익을 본 것으로, 탄자니아가 부국(富國)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저씨는 탄자나이트를 팔아 번 돈으로 자신의 지역 사회에 쇼핑몰과 학교를 짓고,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배운 게 없지만 사업을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싶다"면서 "내 자녀들에게 전문적인 경영을 하도록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라이저씨는 부인 4명과 슬하에 자녀 30명을 두고 있다. 조만간 소 한 마리를 잡아 파티를 열 계획이다.

성모 마리아 맞아?…스페인서 또 '아마추어 복원 참사'





회화와 조각 등의 예술작품은 세월이 지나면 변색 등의 열화 현상이 생겨 복원 작업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런 복원 작업을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에게 맡겼다가 작품이 훼손되는 사례가 상당한 모양이다.

얼마 전 스페인에서는 한 예술품 수집가가 한 유명 화가의 유화작품 복제화를 아마추어 복원가에게 복원 작업을 맡겼다가 후회한 사연이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발렌시아에 사는 한 익명의 예술품 수집가는 자신이 아끼는 한 유명 화가의 유화작품 복제화를 한 아마추어 복원가에게 1200유로(약 165만원)를 주고 복원하도록 했다가 분개하고 말았다.

그가 의뢰한 작품은 17세기 스페인 바로크 회화의 대표 화가인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1617~1682)의 유화작품인 '베네라블레스의 원죄 없는 잉태'(Immaculate Conception of Los Venerables)의 정교한 복제화로, 원래 성모 마리아가 그려져 있었지만, 복원된 작품에는 전혀 다른 여성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해당 복원가에게 작업을 다시 하도록 했지만, 그 모습은 더욱더 끔찍하게 변했다.

이는 8년 전인 2012년 8월, 스페인 '셍츄어리 어브 머시'라는 이름의 교회에 있던 100년 전 19세기 지역화가 엘리아스 가르시아 마르티네스가 그린 프레스코 벽화 '에케호모'(Ecce Homo·이 사람을 보라) 속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당시 80세 할머니 세실리아 히메네스가 복원했다가 원숭이 얼굴처럼 그려놓은 유명한 복원 참사를 떠올린다.

당시 해당 벽화는 '비스트 지저스'(Beast Jesus) 혹은 '에케모노'(Ecce Mono·이 원숭이를 보라) 등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치렀고, 이를 보기 위해 관광객이 몰리면서 기념품까지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불과 2년 전인 2018년에는 16세기 때 제작된 성 조지 목각상의 복원을 한 미술교사에게 맡겼다가 도료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훼손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이 조각상은 전문 기관을 통해 다시 복원돼 거의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아마추어에 의한 예술작품 복원 참사가 다수 보고된 스페인에서 또다시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갈리치아 문화유산 보호·복원학교의 페르난도 카레라 교수는 "복원 작업은 훈련된 복원가들에 의해서만 수행돼야만 한다"면서 "난 이 사람, 아니 이런 사람들은 복원가로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하게 말하면 이들은 예술작품을 엉망으로 망쳐놓는다"고 덧붙였다.

스페인문화재복원협회(ACRE)의 협회장이었던 카레라 교수는 스페인 법에서는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예술작품 복원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CRE 발렌시아지부의 마리아 보르자 부지부장은 "이런 복원 참사 사례는 생각 이상으로 많다. 예술작품 복원 실패는 SNS상에서 확산했을 때만 주목받지만 주위에 확산하지 않은 아마추어 복원가의 복원 실패 사례도 많다"면서 "아마추어 복원가에 의한 복원 작업으로 예술작품이 입은 손상은 전문가도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핸슨&컴퍼니 변호사 사무실

한국어 법률 상담 403-537-8861

" 법률로 해결할 일이 있습니까?
서두르거나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최상의 방안을 찾아 최고의 결과를 만드십시오! "

변 호 사 | 법 무 사

Gary E Hansen
캐나다 최고의 이민변호사

Ben Plumer
소송 / 개인상해 / 이혼 전문 변호사

에릭 김

- 부동산 • 여권 및 영주권사진
- 개인상해 • 공증
- 위임장 • 유언장 & 상속
- RCMP 범죄경력서를 위한 지문조회

미국이민 · 캐나다이민 · 회사법 · 공증 · 부동산 · 유언장 & 상속 · 이혼 · 위임장 · 개인상해 · 소송

HANSEN & COMPANY

558 – 9th Avenue S.E., Calgary, Alberta T2G 0S1 www.hansen-company.com / Tel. 403-261-6890 / Fax. 403-263-1632